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 K-선비문화 중심지 도약

역사토크콘서트·체험 프로그램 호평... 하반기 운영 선비 밥상 체험 ‘풍류다이닝’ 등 다양한 콘텐츠 기대

장성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장성 필암서원에서 전통 선비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K-선비문화’ 중심지로 육성한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역사토크 사(史)랑콘서트’의 흥행을 발판 삼아,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선비문화 콘텐츠를 확대 운영한다.

사랑방콘서트는 ‘세계유산 필암서원 K-선비문화 프로젝트’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다. 선비들이 담소를 나누던 ‘사랑방’의

정취에 역사적 의미를 더해 기획됐다. 사랑방콘서트에는 예상 인원을 크게 웃도는 400여명의 방문객이 찾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필암서원에 배향된 허서 김인후 선생의 삶과 인종 임금과의 각별한 우정, 안타까운 사별에 이르는 이야기 등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 강연을 통해 필암서원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설민석 강사는 강연 중 어린 관람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역사에 대한



설민석 강사와 함께한 필암서원 사랑방콘서트.

사진제공=장성군청

흥미를 이끌어냈다. 공간 구성도 돋보였다. 아의 잔디밭에선 붓글씨 체험, 장명루 만들기, 유성복 입기, 전통놀이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한

끼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또 관람객 동선을 고려해 서원 안쪽에 주무대를 배치하고, 입구 주변에는 추가

좌석과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세심한 운영도 호평을 받았다. 군은 주말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주차 공간 확보와 안내 인력 배치에도 힘썼다.

군은 높은 호응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간시간 필암서원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살려 선비들의 밥상을 체험하는 ‘풍류 다이닝’과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별빛서원 풍류 아카데미’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가을에는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재현한 ‘문벌여장성 과거시험 재현행사’도 열린다. 참가자들은 유생 복장을 입고 과거시험을 체험하며 조선시대 선비의 삶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군은 이 밖에도 필암서원 공식 누리집

제작과 함께 관련 고문서를 디지털화하는 ‘선비문화 아카이브’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심우정 권한대행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선비문화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노력이 올해 본격적인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필암서원이 세계 속에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는 K-선비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 필암서원은 인종 승하 이후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한 허서 김인후 선생의 학덕과 굳은 지조를 기리기 위해 1590년에 지어졌다.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며 전남지역 유일의 세계유산 서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h6669@gwangnam.co.kr



장성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덕촌지구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제2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장성군청

장흥, 주민 이익공유 상생형 재생에너지 모델 구축

덕촌지구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국내 최대 400MW급

장성군이 주민이익 공유를 기반한 상생형 재생에너지 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덕촌지구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제2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민관협의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 위원들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계통 연계 방안과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태양광발전소 운영 방향, 스마트팜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은 제안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덕촌지구 태양광발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은 대덕읍 가학리와 회진면 진목리 일원 330만5785.12㎡(100만평) 부지에 조성되는 400MW급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발맞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주민이익 공유제를 적용해 주민 자본 참여, 발전 수익 배당, 지역회생 활용 등 다양한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덕촌지구 태양광 집적화단지는 민관이 함께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진도군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모 선정...사업비 25억 지원

진도군보건소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5억원을 지원받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8일부터 10월 말까지 진도군보건소 건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노후 창고와 냉난방기 교체 작업, 건물 외벽(페널) 설치, 태양광 발전시설 등 에너지설비 개선사업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배출 저감과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공사 기간에는 부득이하게 보건소 2층과 3층 사무실을 진도군 명품관 건물의 1층, 2층으로 이전에 임시사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소 1층에는 진료와 검사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이 있어 이전이 어려우므로 공사 기간에도 보건소 1층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차장 통제 등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나주 남평읍, 주거 취약계층 2년째 ‘전기사고 제로’ 노후 전기설비 점검·교체 지원...따뜻한 안전복지 실현

나주시 남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시근·구동주, 이하 남평읍지사협)는 지난해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 ‘전기사고 ZERO! 주거 취약계층 안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2년째 운영하며, 화재와 감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기설비 점검이나 교체가 쉽지 않은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가구 3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기 안전 점검과 노후 배선·차단기 교체, 전등 및 콘센트 정비 등 실질적인 주거 안전 개선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사업 역시 ㈜번계전 대표이자 협의체 민간위원장이 구동주 위원장의 재능기부로 추진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번계전 직원들도 현장 지원에 함께 참여하며 전문 전기 기술을 활용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오시근 남평읍장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사업이 전기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나주=조현정 기자 pose007@gwangnam.co.kr

영암서 일주일·한 달 ‘지역살이’ 매력 폭

청년들이 전남 영암에 머무르며 지역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체험하고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는 ‘전남청년마을’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공모를 통해 시작된 ‘청년인생 내컷마을’이 외지 청년과 지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1년 차 사업에는 리빙랩과 마을호텔, 지역 탐방 등에 약 90명의 청년이 참여해 영암에서의 생활을 직접 경험했다.

올해 추진 중인 2년 차 사업은 실습 중심의 체험형 콘텐츠가 주를 이룬다. 지난 1분기 운영된 집수리 클래스에는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각지의 청년 25명이 모여 목공 기술을 익혔다. 이들은 직접 데크와 울타리를 제작하며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역 공간을 가꾸는 활동에 참여했다.

지역의 맛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최근 영암 고구마를 재료로 한 디지털 쿠킹클래스가 호응 속에 마무라됐으며, 향후 무화과와 대봉감 등 지역 특산물을 테마로 한 수업이 차례



1기 집수리 클래스 모습.

사진제공=영암군청

청년인생 내컷마을, 목공·요리 등 로컬 프로그램 풍성

로 열릴 계획이다.

참가자들이 영암 홍보대사로 나서서 서포터즈 활동도 병행된다. 마을호텔 투숙객들은 지역 명소와 맛집을 누비며 제작한 사진과 솜씨 콘텐츠를 SNS에 공유해 영암의 숨은 매력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청

년들이 영암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로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청년인생 내컷마을’ (061-473-0155)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암=서승용 기자 biz@gjdream.com

자전거로 구례 한바퀴, 빙구레스테이션 대여 시작

500원으로 즐기는 섬진강의 자연, 자전거 대여 서비스 인기

전남 구례군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빙구레스테이션’이 로컬마켓과 관광안내 기능을 결합한 복합 관광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28일부터 빙구레스테이션 내에서 지역 농특산품과 관광굿즈를 판매하는 ‘빙구레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관광명소 안내와 함께 관광형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시작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례군 관광형 자전거는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섬진강변을 따라 라이딩을 즐길 수 있어 대가족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1시간당 500원의 이용 요금으로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빙구레스테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역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제작한 ‘Made in Gurye’ 제품을 만날 수 있는 빙구레마켓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자전거 여행과 로컬마켓이 함께 시너지를 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구례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발굴하고, 자전거 대여를 비롯한 다양



한 관광서비스를 확대해 빙구레스테이션이 여행객을 위한 필수 방문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이민구 기자 city@gjdream.com

해남시네마, 영화 한 편 1000원

10월 31일까지 관람료 할인

해남군 작은영화관 ‘해남시네마’가 영화 관람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1000원 영화 관람 혜택을 제공한다.

해남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진하는 ‘2026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에 해남시네마가 선

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영화관람료 할인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지원으로 일반 2D 영화의 경우 기존 성인 관람료 7000원에서 6000원이 할인돼 관람객은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할인·우대 관람권과 문화의 날 관람권도 기존 6000원에서 5000원이 지원돼 동일하게 1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3D 영화는 기존 관람료 9000원에서

6000원이 할인돼 3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할인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해남시네마를 찾는 이용객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 예매뿐 아니라 온라인 예매도 가능하다. 온라인 예매는 차수별 1, 2매까지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매는 해남시네마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해남=박기성 기자 city@gjdream.com